

# 대학교육의 대전환

## - 정규대학교육 : 비정규대학교육 -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1. 들어가면서

대학교육이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의 변화와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로 특징지어지는 지식집약사회의 요구가 대학교육의 새로운 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는 과학과 기술 훈련 및 연구에 치중되어 왔던 반면 새로운 세기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창의적 지식응용 능력에 비중을 두게 됨에 따라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이 점점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면에서나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교수방법 및 교과내용 면에서 전통적 대학의 모습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구조적 측면에서나 운영의 측면에서 정규대학교육과 비정규대학교육간의 선택내지는 절충이 불가피한 추세가 예견되고 있다. 21세기의 대학은 책대신 CD롬이 차지하는 '책 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캠퍼스에서의 수업보다는 재택학습이 확대되는 '캠퍼스 없는 대학'(campusless college) 그리고 강의실에는 교수대신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 없는 강의실'(professorless classroom)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들을 고려해 볼 때 대학

은 평생교육체제로의 새로운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이 정규대학에서 비정규대학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전제하에 비정규대학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 2. 정규대학교육 대 비정규대학교육

현재와 같은 고등교육 인구특성의 변화, 제한된 재정 자원 그리고 현장과 대학간의 거리감을 최소화하는 적시성교육(just-in-time education) 등의 확대는 전통적 상아탑적 대학교육관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시간제 학점단위 등록 학습자의 증대와 계속 고등교육의 확대, 재택학습 등의 확산 등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정규대학교육의 위상변화는 불가피한 전망이고 비정규대학교육간의 갈등의 소지마저 있다. 더구나 사이버구조와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의 급격한 신장은 국경을 초월한 비정규대학교육의 핵심적 영역이 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 숫자 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강학생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정규대학교육을 잠식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 1) 대학환경변화와 정규대학교육

일반적으로 대학의 전통적 기능은 연구, 교육 그리고 봉사로 집약되어 왔다. 이러한 대학의 전통적인 세 기능은 지금껏 일반사회의 어느 기관에서도 수행하기 힘든 종합적이고도 고유한 기능으로 인정받아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급격한 기술과 산업발전은 대학 고유의 이러한 기능에 큰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고 특히 컴퓨터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의 확산은 교수 방법 면에서나 대학운영 등 대학기능 전반에 대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사회로 지칭되는 사회적 특성은 조직특성 면에서도 책임중심조직(responsibility-based organization)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식경영의 측면에서는 지식의 경제성과 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연구의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의 측면과 사회봉사의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기능에 한계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기관과의 '지식연대' 내지는 '지식공유'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대학교육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過程)적 측면에서도 정규대학교육의 한계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세기적 전환기에 대학의 3대 변화를 '정보화', '탈 제도화' 그리고 '고객화'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의 특성과 기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전통적 대학의 특성은 상아탑적 이상을 구현하는 데 있었으나 산업화와 사회변동의 결과로 대학의 특성이 '학생고객'의 개념과 '교육산업'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접어든 것이다.

고등교육인구의 특성 면에서도 제한된 연령층과 고등교육 졸업자로 국한시켜 왔던 정형적 학생의 개념에서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대상으로 하는 '학생소비자'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입학에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사운영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혁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물

론 대학교육의 목적과 기능 면에서 뿐만 아니라 체제와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학환경 변화의 주된 특성들을 볼 때 정형적 제도에서 열린 유연한 체제로 변화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방법 등에 있어서도 강단교육식이 아닌 개방된 학습체제가 확산되고 있어 평생고등교육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라 볼 수 있다.

대학환경 변화에 따른 정규대학의 특성변화들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형적 대학교육에서 비정형적 대학교육으로의 변화
- ② 학사운영과 교육방법 등에서의 폐쇄적 체제에서 개방된 체제로의 변화
- ③ 교수(teaching)중심체제로부터 학습중심체제로의 변화
- ④ 정원 중심사고에서 다양한 학생고객 중심사고로의 변화
- ⑤ on-campus의 사고로부터 off-campus와 multi-campus의 사고로의 변화
- ⑥ 엘리트고등교육관에서 성취중심, 자격중심의 일반고등교육사회로의 전환
- ⑦ 상아탑적 사고로부터 교육 산업적 사고로의 전환
- ⑧ 대학경영사고에서 지식경영과 교육서비스사고로의 전환
- ⑨ 커리큘럼의 사고로부터 학습체제(learning format)로의 변화
- ⑩ 정보화와 학습이 연계되는 mega-university의 확산
- ⑪ university의 개념으로부터 통시대체중심의 원격교육체제인 televersity와 성인중심대학인 andraversity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의 transversity 개념으로의 변화

이러한 정규대학의 특성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주된 환경변화 요인들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교수방법 및 기술의 변화, 고등교육인구의 특성변화, 사회의 교육 수요적 특성변화 그리고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적시성교육의 증가와 계속 고등교육의 확대 등도 대학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켜 오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이러한 교육목적과 과정 그리고 체제의 변화는 결국

대학의 전통적인 기능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특성과 교육요구의 측면에 있어서나 대학의 행정체제 그리고 전공영역의 배치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정규대학교육의 한계성에 도전하면서 정규대학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비정규대학교육이 확충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규대학은 학습지원센터나 학습망(learning net)의 역할수행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반면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정규대학교육을 확충하는 형태의 비정규대학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교수의 역할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21세기 초반에는 대학교수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양적인 측면에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입학체제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경직된 형태가 대폭 개선되어 비정규대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체제로 변화되리라 본다.

## 2) 비정규대학교육의 확대

정규대학교육의 변화는 결국 비정규대학교육의 확대를 의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규대학교육과 비정규대학교육간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비정규대학교육은 그 대상과 체제 그리고 방법 면에서 정규대학교육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무엇보다 방법 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고 시간, 장소, 내용, 대상 등의 측면에서도 많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학습자 중심의 무정형적 대안교육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비정규대학교육은 크게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 교외(off-campus)프로그램, 이동학습 프로그램(mobile learning), 학점은행제 등의 다양한 비정규프로그램과 재택학습(home schooling)프로그램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대학교육은 정규대학교육에 비해 대상이나 내용, 수업장소와 시간, 학습내용 등이 매우 광범위하고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인데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무슨 내용이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비정규대학교육은 다분히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비정규대학교육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입학과 졸업 등 자격요건의 탄력성이 높다.
- ② 학습대상이 연령, 인종, 국적 등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고 폭이 넓다.
- ③ 학습시간과 방법 등 학사운영체제가 학습자 중심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 ④ 정형적인 커리큘럼보다 주문형 커리큘럼 내지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체제(format)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⑤ 주로 시간제 학생이 많은 특성을 지닌다.
- ⑥ 정규대학교육의 연계체제가 가능하다.
- ⑦ 교수방법 면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L(computer based learning), CAT(computer assisted training) 등 다중매체, 지식매체(knowledge media)를 활용한다
- ⑧ 재택학습방법이 활성화되어 있다.
- 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시성 교육이 강조된다.
- ⑩ 일반적으로 방법 면에서 성인교육 기법이 강조된다.
- ⑪ 운영 면에서 사이버체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 ⑫ 입학의 문호가 매우 넓고 특별전형 예컨대 경험중심입학(experience based admission) 등 다양한 선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 ⑬ 지역사회나 산업체 등 교육자원의 활용범위가 넓고 열린 학습장의 특성을 지닌다.
- ⑭ 학습망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고 정규대학간의 컨소시움형 비정규대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⑮ 정규대학 사회프로그램과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 ⑯ 대상 면에서 성인학습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대학교육은 대상 면에서나 프로그램의 범위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형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가상대학의 경우만 보더라도

라도 1999년 4월 현재 세계적으로 4,700여 개에 이르고 수강 학습자만도 2,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campus life, 1999)

이 외에도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종 통신매체나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여러 유형의 재택학습자들도 전체 인구의 53%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비정규대학교 교육은 시간제, 단위학점 이수제, 재택학습자 등의 특성 속에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규대학교육과 비정규대학교육간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정규대학교육과 비정규대학교육의 비교

	정규대학 (university)	비정규대학교육 (andraversity/televersity)
프로그램의 본질	커리큘럼중심 프로그램	학습자중심 프로그램
체제와 체계의 특성	공식체제/구조	준공식체제/비공식체제
학습 주도자	교수	학습자
스케줄	고정스케줄	비고정 스케줄
장소	고정된 캠퍼스	유연성 있는 학습장소
진달체제	전통적 제한적 체제	비전통적 무제한적 전달체제
학습체제	캠퍼스 중심	대학-산업체-기업 연계체제
연계체제	폐쇄적 특성	협동적 특성
학생의 특성	전통적 정규학생	개방된 학습대상
평가	교수 주도 평가	학습자/교수 협력평가
조직의 기본요소	공급자(교수)	소비자(학습자)
가치 또는 목표	아카데미즘(학습의 공급)	고객주의(학습의 소비)
대학의 실체	교육센터	학습센터
입학	정원체제	개방체제

위 표에서 비교되고 있듯이 정규대학교육과 비정규대학교육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확연하게 다른 측면이 있고 향후의 기술과 대학교육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호 보완적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목적과 교육대상의 변화를 감안할 때 교수 위상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비정규대학교육의 확대는 향후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이동을 예고하고 있다 하겠다.

### 3. 맺으면서 : 대학교육의 대전환

21세기에는 대학의 교육적 사명과 기능이 몇 가지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이동을 하리라 본다.

첫째, 정규교육에서 재교육 내지 훈련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이다. 대학이 캠퍼스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할 것이며 상아탑적 지식과 강단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시성 지식의 개발과 발전이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대학교육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결국 비정규대학교육의 대폭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산-학연계가 강화될 것이고, 대학은 직업창출과 구직의 이중적 역할을 조화할 의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학교육에서 비정규교육의 확대는 대학교육에서의 수월성 문제를 더욱 강조할 것이다. 질관리체제의 일환으로 국제적 질관리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규학생과 시간제 학생, 학위취득과 재훈련 목적의 학습자를 조화롭게 교육하는 과제가 대두될 것이다.

여섯째, 대학교육은 정규대학교육과 비정규대학교육의 접목에 의한 제 3유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 예견된다. 제 3유형의 신 패러다임은 다국적 현장중심 학습망의 특성을 띠며 가능성이 높고 초거대 대학의 면모를 갖출 것이기 때문에 전자매체형 초거대 대학(megaversity)이 일레가 될 것이다.

일곱째, 교수인력의 두드러진 감소가 예상되고 선진국의 경우 교수의 숫자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되고 비정규대학의 확산에 의한 정규대학 커리큘럼의 대폭축소가 예견된다.

이 외에도 21세기의 대학모습은 대학체제 내지는 전통대학 무용론이 등장할 소지마저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점에서 21세기

대학교육은 어쩌면 '대학의 종언'이 이루어질 가능성마저 있고 비정규대학과 정규대학간의 전쟁(war between traditional university and nontraditional learning)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컴퓨터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정보화체제의 확산에 따라 6~7년마다 지식양의 배가가 이루어지고 21세기 지식의 양이 20세기의 15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볼 때, 정규대학교육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대전환의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전환과정에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지능교수(smart professor)나 초능력학습(super learning) 등이 확산되면 정규대학은 의외로 짧은 기간에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도식적이고 경직된 대학관을 탈피하여 대학의 본질적인 이념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자세로 변화를 수용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정규대학과 비정규대학을 접목한 이상적인 21세기형 대학의 정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때 '모든 이를 위한 대학교육'이 가능하고 사교육

비 문제 등 고질적인 교육병리현상도 자연치유될 뿐만 아니라 누구든 능력과 자질에 따라 학습하는 '대학학습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정규대학은 학습자원센터(learning resource complex)가 될 것이고 비정규대학은 연계체제 내지는 단위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종언**

#### 이현청

한양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대학에서 교육과학석사,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 교수, 남일리노이대학과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며, UMAP(아·태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의장, 말레이시아 교육부 자문교수, 세계대학협의회(IAU) Higher Education Polic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육사회학』,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생존전략』, 『학습하는 사회』 외 다수가 있다.